

배포장재를 개발한 바 있다.

이 포장재는 포도파손의 가장 큰 원인인 포도끼리의 마찰과 바닥의 충격을 최소화한 것으로 포도택배의 안전성을 크게 높였다.

지난해 시범 사용 결과 소비자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하지만 포도 포장 작업시간과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는 등 대량유통에 한계가 나타나 개선이 요구됐다.

이에 따라 영동군은 포도송이 하나하나 에어캡으로 감싸던 방식에서 접착형 포도비닐봉지를 개발해 노동력과 포장작업시간을 크게 단축시키고 포도 중량에 의한 포장재 옆면의 주저앉음 방지용 보완재(꺼쇠) 및 바닥재(에어캡)를 제작해 택배운송 안전성을 더욱 높인 포장재를 개발했다.

영동군은 개발된 포도택배전용포장재 1만8천여매를 읍면에 배부하고 전자상거래와 포도택배 판매(희망)농가 시범 보급을 통해 TV·인터넷 홈쇼핑 등에도 판로를 확보해 포도택배판매를 추진할 계획이며, 올해 포도축제 때 포도택배주문에도 사용할 예정이다.

또한 가장 많이 유통되는 5kg형 포장재에 대해 쓸림과 마찰을 방지하는 칸막이를 이용한 간편형 택배포장재와 직거래 때 소비자의 운반편의를 위한 2송이·2kg·5kg용 손잡이형 포장재를 개발 중으로 포도축제와 포도출하 성수기에 포도농가들에게 시범 보급할 예정이다.

이번 포도택배전용 포장재 개발로 군과 포도농가의 오랜 숙원이었던 안전한 택배유통이 가능하게 됐고,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와 택배유통시장에서 영동포도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됨에 따라 농가소득 증대와 영동 농특산물과 지역 홍보효과 또한 클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남도
2008 국제물류박람회 개최
산업의 핏줄, 물류의 모든 것 한눈에

산업의 혈맥인 물류 부문 혁신을 선도할 '2008 국제물류박람회'가 지난 달 26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29일까지 4일간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세코)에서 펼쳐졌다.

경상남도과 창원시가 주최하고 한국경제신문사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제조 및 유통 업체들의 물류비 절감과 물류 시스템 선진화를 위해 마련됐다.

경남도와 창원시는 '남해안 시대 도약'을 목표로 그동안 꾸준히 마련해온 수송기계부품전과 국제조선해양산업전, 국제요트대전, 사천항공우주엑스포와 이번 행사를 연계해 경남지역을 육·해·공을 아우르는 종합 물류 메카로 도약시킨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 국제물류박람회에는 10개국에서 80여개 업체가 참가해 각종 최첨단 물류 기기와 서비스 및 물류 정보기술(IT) 장비들을 선보였다.

물류 기기 분야의 경우 국내 대표 기업인 현대중공업이 중장비 사업 부문에 참가해 최신 전동지게차를 선보였다.

전진중공업은 디젤지게차, 펌프카, 미니굴착기를 출품한다.

종합 물류장비 기업인 수성은 10m 작업이 가능하도록 최근 개발한 고소작업대 등을 선보였으며 해외에서는 독일 노바스코리아, 영국 세브콘사의 아시아지역 자회사인 세브콘아시아, 일본 전진씨에스엠 등이 첨단 제품을 전시했다.

삼이코포레이션과 경창정공, 금성에이스산업과 명광산업, 한창콘베어, 인팩글로벌, 가고파이원특장, 대성특장 등 중소형 물류기기 업체들도 지게차와 산업용 바퀴, 무인 자동차 운반차, 운반기기 등 첨단 운송장비를 전시했다.

물류 서비스 분야도 다양한 제품이 전시됐다.

특수화물 업체로 시작해 지난해 종합물류 인증 기업이 된 한익스프레스와 각종 물류 서비스 공동 브랜드를 가진 한국로지스폴, 농수산물 등의 상품을 수송하는 파렛트 기기의 임대와 운송을 맡고 있는 한국컨테이너풀과 한국파렛트풀 등이 참가했다.

이들은 글로벌 네트워크와 선진 물류 시스템을 활용한 제품을 주로 출시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물류 IT 분야에는 물류정보의 첨단화를 추구하는 한국정보사회진흥원과 u-IT클러스터지원센터, 현대유엔아이, CJ시스템즈, 네톰 등이 참가해 다양한 물류 IT 시범 사업들을 선보였다.

부대행사들도 다양하게 열려 지난 달 27일 일본과 중국, 홍콩, 러시아, 호주 등의 해외 바이어들이 참가하는 수출상담회가 세코 대회의실에서 개최됐으며 같은 날 경남발전연구원은 항만·물류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신항 활성화를 위한 경남의 전략 컨퍼런스'라는 제목으로 학술

세미나를 열고 신항의 고부가가치 발전 전략과 신항 배후부지의 효율적 활용 전략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펼쳤다.

경남도와 창원시는 이번 박람회에도 1만여명의 국내외 바이어가 방문해 5천만달러 이상의 상담이 이뤄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수산물유통정보포털시스템 구축
국내수산물 유통 및 가격정보 제공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는 웹기반의 수산물유통정보포털시스템 구축과 함께 RFID를 이용한 수입수산물 추적관리 시스템 시범사업을 8월부터 약 7개월에 걸쳐 실시한다고 밝혔다.

2008년도 u-IT 확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수산물유통정보포털시스템 구축사업은 '99년부터 산지조합별로 독립적 구축·운영중인 산지 수산물유통정보시스템을 정보교환 및 통합관리가용이한 웹기반으로 재구축하며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소비지 가격정보와 수산물수출입정보를 통합·연계해 수산물에 대한 산지, 도매시장, 소비지 가격정보 및 수출입 정보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의 전문포털사이트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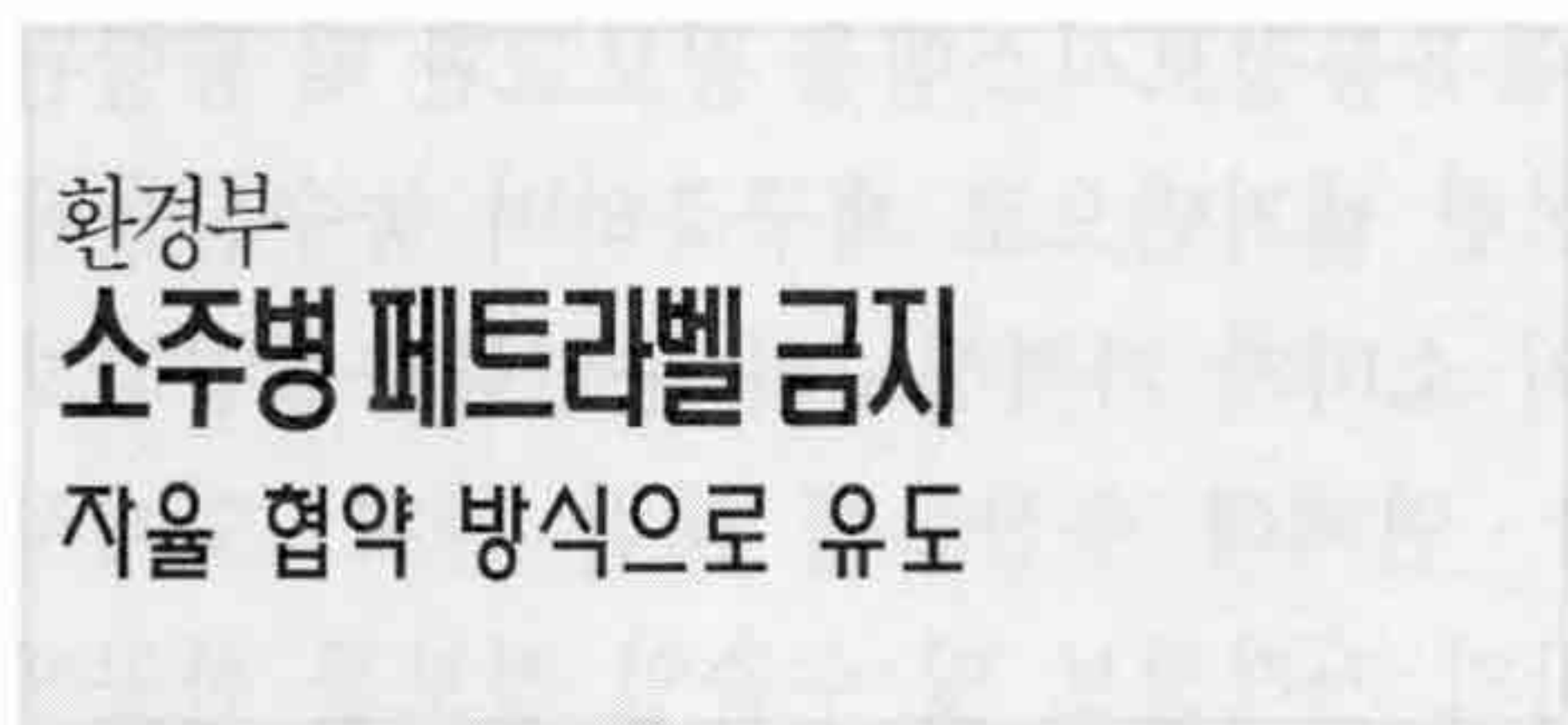
또한, 수입수산물의 수입시점부터 냉동창고와 수산물 가공공장을 거쳐 급식소 및 소비단계까지의 모든 유통경로를 RFID 기술을 이용해 추적함으로써 수입수산물의 안정성 확보는 물론, 유통량과 재고파악 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농림수산물식품부는 어선정보, 어업 인허가 정보 등수산행정의 기반이 되는 중요정보를 모든 수산관련 기관이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수산정보공동활용시스템도 구축한다.

정보공동활용시스템이 구축되면 농식품부, 수산과학원, 수산물품질검사원, 지방자치단체, 수협 등 수산관련기관이 정보를 공유·연계함으로써 데이터 표준화를 통한 품질향상은 물론 동일 자료의 중복구축을 방지하고, 민원행정 구비서류의 감소 등 대국민 서비스가 강화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u-IT기반의 수산물유통 정보포털시스템이 구축되면 더욱 투명한 위판 현황 정보제공과 유통정보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수입수산물의 수급정책 수립지원이 가능하며, 안전성 문제 발생시 추적관리를 통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등 수산물 유통분야 업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땀별 여름. 더운 날씨지만 시원한 바다 이미지가 떠오르는 포장으로 마케팅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던 진로 두산 등 소주업체에 고민이 생겼다.

소주병에 붙이던 라벨을 종이 대신 페트로 사용했더니(라벨포장은) 문제가 있다며 정부가 제

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환경부(장관 이만의)와 소주업체에 따르면 업체들이 고객들의 시선을 붙잡는 마케팅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페트라벨 사용을 막는 방안을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다.

당초 업체들은 여름 시장 공략 차원에서 병 전체를 랩핑하는 방식으로 시원한 느낌을 살린 제품을 앞다퉈 내놨다.

실제로 진로의 경우 5월초 ‘참이슬 후레쉬 섬머’를 출시하며 바다느낌을, 두산도 최근 ‘처음처럼 쿨’에 이효리를 앞세워 시원한 소주 이미지를 페트라벨로 극대화한 것이다.

페트라벨 사용 이유는 눈에 쉽게 띄는 홍보효과 때문이다. 일단 홍보 면적이 넓어지고 알록달록한 칼라를 다양하게 섞을 수 있어 젊은층에 선호도를 높일 수 있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광고 효과외엔 뚜렷한 용도가 없는데다 페트라벨이 플라스틱 재질이라 분리수거시 일일이 수작업으로 떼내야 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미 지난 7월 해당 업체 임원들을 불러 사용 자제를 요청한 바 있는 환경부는 우선 업계 자율 협약 방식으로 스스로 라벨 사용을 자제토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엔 지침을 내려 강제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매출증대에 쏠쏠한 재미를 보던 업체들이 난감해하고 있다.

여름 선주문해 둔 물량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다 진로 두산이라는 라이벌 업체가 치열한 시장싸움을 벌이고 있는 터라 결론을 내기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이다.

또 결론이 늦어지면 두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체들까지 라벨 사용에 가세할 가능성도 있어 향후 파장이 주목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환경부 관계자는 "(두산 진로 등)경영층의 확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달안에 업계 자발적인 협약 등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다만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최소한 지침 법에 근거해 규제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농림수산물식품부
축산 유통시 거래명세서 의무화
 2년간 반드시 보관

축산물 유통 과정의 거래 기록 규정이 까다로워진다. 이는 수입 축산물의 유통 흐름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장태평)는 식육 가공·판매업체 거래명세서 발급 의무화 등을 포함한 축산물 가공처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식육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판매업 영업자는 고기를 식당·급식소·가공업소 등에 팔 때 식육 종류·원산지·개체식별번호(쇠고기)·등급 등을 적은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를 반드시 쥐야한다.

지금까지 영수증 및 거래명세서 교부 의무는 식육판매업자에 한해, 그것도 구매자가 원할 경우에만 적용돼왔다.

아울러 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판매업 영업자는 축산물 거래 내역을 기록하

고, 2년간 반드시 보관하도록 했다. 원산지 표시 단속이나 위생 점검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될 경우 추적과 회수를 위한 장치다. 현행 규정은 축산물수입판매업자에 대해서만 '거래내역서 2년 보관'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전성분표시제 시행 준비에 박차
 기재표시 방법 홍보, 설명회 개최

오는 10월 18일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 시행을 앞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화장품 성분 명칭의 통일을 위해 관련 고시의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대한화장품협회를 통해 업체를 대상으로 성분 기재·표시 방법을 홍보하고 있다.

식약청은 지난달 말 전성분 표시제 도입으로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용기와 포장에 한글로 기재·표시해야 함을 상기시키고 대한화장품협회에 대해 기재·표시 방법을 화장품 제조·수입업소에 전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르면 화장품 제조·수입업소는 식약청의 관련 고시에 수재된 원료의 경우에는 고시에 따른 한글 명칭을 기재·표시해야 하며, 관련 고시에 수재되지 않은 원료는 대한화장품협회의 화장품 성분사전에 따른 한글 명칭을 기재·표시해야 한다.

또 관련 고시와 성분사전에 수재되지 않은 원료의 경우에는 화장품법시행규칙 제14조제2호에 따

라 한글 일반명을 우선 기재표시하되, 해당 제조·수입업소는 화장품협회와 긴밀히 협조해 조속히 화장품 성분사전에 원료의 한글 명칭이 수재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아울러 식약청은 대한화장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와 공동으로 지난 달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대강당에서 화장품 제조·수입업자 및 새로 화장품으로 분류된 액상비누의 제조·수입업자를 대상으로 전성분표시제도 도입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한편 식약청은 전성분 표시제 시행에 대비해 화장품 성분사전상의 명칭과 관련 고시상의 명칭을 통일하기 위해 지난 7월 17일자로 △ 기능성화장품 등의 심사에 관한 규정 △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 사용기한 표시 대상 화장품 지정 △ 자외선 차단효과 측정 방법 및 기준 △ 화장품 원료 지정에 관한 규정 등의 개정안을 입안 예고하고 지난 달 6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약 소량포장단위 30정·캡슐 유지
의협, 약국 불법진료 우려 반대 수용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지난 달 1일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를 발표한 가운데 의협이 요구한대로 병포장 소량포장단위는 30정·캡슐로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식약청은 소량포장단위 공급 적용대상 현행 규

정에서 30정·캡슐로 고정되어 있는 포장 단위를 '30정·캡슐로 이하'로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지난 7월 9일부터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의협은 병포장단위를 30정·캡슐로 조정할 경우 약국의 불법진료를 부추겨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며, 해당 제약사의 의약품 제조비용 상승으로 약값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식약청은 이밖에 이번 고시에서 소량포장단위 적용대상에서 관납용 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및 50원 이하의 저가의약품을 제외했으며, 소량포장단위 품목 공급량은 기 생산된 소량포장단위 품목 재고량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금속제 식품 조리기구 안전기준 강화
크롬 및 니켈의 용출규격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식품을 조리할 때 널리 사용되는 냄비, 프라이팬 등 금속제로 된 식품용 조리기구에 대해 크롬 및 니켈의 용출규격을 신설하는 등 금속제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금속성 재질의 기구 및 용기·포장은 형태에 따라 금속제 및 금속관 규격으로 분리돼 있으나 금속제 규격으로 통합되며, 납을 0.1% 이상 함유하는 금속으로 기구 및 용기·포장의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제조를

금지한다.

크롬 및 니켈은 다른 금속과 합금으로 사용되거나 불순물로 존재해 식품으로 이행될 우려가 있으며 최근 유럽에서 칼, 포크 등 일부 스테레스 기구류에서 크롬 및 니켈의 용출 사례가 보고된 바 있어 이들에 대한 용출규격을 각각 0.1ppm 이하로 신설했다.

이번 금속제 중 납, 크롬 및 니켈 규격 신설·강화를 통해 일반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국내 유통 금속제 조리기구에 대한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가 기대되며, 앞으로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기구 및 용기·포장으로부터 식품으로 이행될 우려가 있는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허청
포장식품 '신선도 라벨' 확인 가능
 이미 신선도 표시라벨 6건 특허출원

우유 등 포장식품의 내용물을 직접 보지 않아도 '신선도 라벨'만 확인하고 구입할 시기가 머지 않았다. 국내에서 신선도 표시라벨에 대한 연구개발이 진행중이며 이미 6건은 특허출원된 상태다.

특허청(청장 고정식)에 따르면 금속 산화물, 전도성 고분자, 후각센서, 근적외선 분광분석법, 메탈포르피린 시험법 등 간편하고 신속하게 칩 형태로 다중배열한 장치 등을 이용한 신선도 측정방법·장치들이 특허출원되기 시작해 2007년까지 총 24건이 출원됐다.

이러한 장치들은 소비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저렴한 가격으로 개발된 것이 아니고 생산유통단계에서 생산자, 판매인, 유통업자, 검사기관이 이용할 수 있다.

포장식품을 구매할 경우 소비자가 직접 신선도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으로 냉동·냉장 식품 포장지에 태그 또는 라벨 형태로 부착되는 신선도 표시라벨이 특허출원되고 있다.

신선도 표시라벨은 유통기간 중 적정 온도 보관 이력, 포장 후 실제 경과시간, 제품의 현재 온도, 산도(pH) 등을 표시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특허가 국내에서는 2002년에 최초로 출원돼 2007년까지 총 6건이 출원됐다.

그 중 2건은 육류나 유제품의 포장지에 온도변화에 따라 색상이 변하는 시온잉크가 포함된 라벨이 부착돼 제품을 구입할 경우 적정 온도로 보관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다른 2건은 식품과 pH 민감성 물질 사이를 반투과성 필름으로 차단하고 식품의 변질과 함께 생성되는 이온성 물질이 반투과성 필름을 통해 pH 민감성 물질을 접촉하면 산도(pH)에 따라 상변화나 색상변화를 일으켜 식품의 신선도를 육안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온도센서와 타이머, IC칩, 전자종이 표시패널 등으로 이뤄진 RF 태그(Radio Frequency tag)를 포장지에 부착시켜 식품이 생산돼 유통되는 순간부터 시간을 카운트하고 카운트되는 시간에 따라 온도센서가 측정하는 정보를 IC칩에 저장하고 그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선도 정보를 전자종이 표시패널에 표시처리하는 방법이 출원돼 있다.

포장식품의 태그 내에 나뭇잎을 넣어 시간이